



신문의 지면 편집은 무엇을 지향하는가?

배진아 공주대학교 영상학과 교수
윤석민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What Does the Newspaper's Editorial Process Aim to Achieve?***

Jinah Bae***

(Professor, Department of Visual Studies, Kongju National University)

Sugmin Youn****

(Professor, Department of Communi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o understand what daily newspaper editorials seek to achieve, we conducted participant observation of the newsroom and content analysis of newspaper editions. During a 61-day residency in the newsroom, we observed the editorial process and examined the editorial direction of the newspaper, focusing on the twice-daily editorial meetings. In addition, we analyzed the changes in the newspaper from the first edition, which is published at 5 pm, to the final edition, which is repeated up to five times. At first, the editorial meetings in the newsroom were fast-paced, led by the editor-in-chief, and mainly focused on discussing the body and titles of articles. The majority of the discussion during the editorial meeting was about the article's headlines. These deliberations can be interpreted as the process of shaping the tone of the newspaper, as they go beyond simply reviewing the appropriateness of the wording, to reviewing whether the article captures the core message and deciding what to emphasize in the article. The editorials were revised several times after the first edition, with significant quantitative changes through the third edition and only infrequent revisions thereafter. Political and social articles underwent substantial revisions, and the sports section also experienced many changes due to the impact of the Olympic Games. The analysis shows that active and detailed editing on the newspaper pages continues until late night. Based on these findings, we draw the following interpretations regarding the daily newspaper's editorial orientations. First, the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1S1A5B8096358].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grant of Kongju National University in 2023(이 논문은 2023년 공주대학교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연구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jinabae.rosa@kongju.ac.kr, first author

**** younsm@snu.ac.kr, corresponding author

editorial meeting is a process of shaping the editorial tone of the newspaper and pursuing the accuracy of articles within a rigid hierarchy led by the editor-in-chief. Second, despite the changes in digitalization, newspapers continue to invest heavily in the labour, time and money of their editorial staff to ensure the quality of their publications. Third, editing aims to verify facts, improve readability, and strengthen arguments. Fourth, the content of the editorials that continue after the publication of the newspaper for delivery in the metropolitan area is not limited to the occurrence of new events, accidents, or serious errors, but also includes the content of routine editorials such as improving readability, deleting and adding information, and adding interpretations and opinions of reporters. This shows that the editorial process is not limited to adding breaking news or correcting facts, but also includes the process of producing a tone. In conclusion, despite the crisis of digitalization, distrust in journalism and declining readership, newsroom continues to make great efforts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ir publications. Also, the process of editing the final print edition is summarized by the practice of journalistic norms which include fact-checking and the search for accurate words and phrases. The editorial process of a newspaper can be understood as a process of pursuing 'deep and accurate facts' and a process of producing and sharing a tone as a 'collective bias'.

Keywords: Newspaper Editorials, Newsroom, Participant Observation, Accuracy, Editorial Tone of Newspaper

국문초록

일간 신문의 지면 편집이 추구하는 바를 이해하고자 신문사 편집국 참여관찰과 신문 지면의 판 변화에 대한 내용 분석을 실시했다. 신문사 편집국에서 61일간 상주하면서 편집 과정을 관찰했으며, 하루 두 번 열리는 지면 편집회의에 대한 관찰 결과를 중심으로 지면 편집의 지향점을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오후 5시에 발행되는 신문 초판부터 최대 5판까지 반복되는 최종판까지의 지면 변화를 분석했다. 먼저, 편집국에서 이루어지는 지면 편집회의는 편집국장의 주도로 빠르게 진행되었는데, 주로 기사 본문과 제목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 되었다. 편집회의에서는 특히 기사의 제목에 대한 지적과 토론이 가장 많았는데, 제목을 중심으로 하는 논의는 단순히 제목의 표현 등이 적절한지를 검토하는 것을 넘어서서 기사가 핵심 메시지를 제대로 잡았는지 검토하고 기사를 통해 무엇을 강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논조 생산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지면 편집은 초판 발행 이후 여러 차례의 수정을 거치는데, 3판까지는 양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그 이후에는 예외적으로 드물게 수정이 이루어졌다. 정치 및 사회 관련 기사가 많이 수정되었고, 올림픽 경기의 영향으로 스포츠면의 기사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분석을 통해 지면에 대한 적극적이고 세밀한 수정이 늦은 밤까지 지속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신문의 지면 편집이 지향하는 바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해석을 도출했다. 첫째, 지면 편집을 위한 회의는 편집국장이 주도하는 견고한 위계질서 안에서 신문 지면의 논조를 형성하고 기사의 정확성을 추구하는 과정이다. 둘째, 디지털화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신문사는 신문 지면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편집국의 노동과 시간, 비용을 적극 투자하고 있다. 셋째, 지면의 편집은 사실을 검증하고, 가독성을 제고하며, 논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넷째, 수도권 배송용 신문이 발행된 이후에 지속되는 지면 편집의 내용은 새로운 사건·사고 발생이나 중대한 오류에 한정되지 않으며, 가독성 제고와 정보의 삭제·추가, 기자의 해석·의견 추가 등 일상적인 편집의 내용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지면 편집 과정이 새로운 뉴스를 추가하거나 팩트를 바로잡는 데 국한되지 않고 논조를 생산하는 과정을 포함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디지털화와 언론 불신, 독자 감소 등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신문사 편집국은 지면의 완성도를 높이는 일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초판 이후의 최종 지면 편집 과정은 사실을 확인하고 정확한 단어와 표현을 모색하는 저널리즘 규범의 실천 과정으로 요약된다. 신문의 지면 편집 과정은 ‘깊고 정확한 팩트’를 추구하는 과정이자 ‘집합적인 편향’으로서 논조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핵심어 : 신문 지면 편집, 편집국, 참여관찰, 정확성, 신문의 논조

1. 연구 배경

이 연구는 초판 발행 이후 지면 변화 양상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신문 편집이 지향하는 바를 밝히는 것에 목적이 있다.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 등 급격한 환경 변화 속에서 한국 언론은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중에서도 오랫동안 저널리즘의 중심적 주체 역할을 수행해 온 레거시 일간 신문은 말 그대로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 일간 신문은 2천 년대 이후 경영, 영향력, 신뢰도 등 모든 차원에서 지속적인 사양길에 접어들었다. 과당적 진영논리와 저급한 시장 논리가 미디어의 규범적 가치와 수월성의 가치를 압도하는 가운데 언론과 언론인들은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다. 로이터 연구소(Reuters Institute)의 세계 주요 국가 언론 신뢰도 조사에서 한국 언론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연속 최하위를 차지하고(Newman et al., 2021), 2023년에도 46개 국가 중 41위를 기록하고 있는 현실(최진호·이현우, 2023)은 우리 언론의 위기를 여실히 드러낸다.

언론의 위기는 단순히 신문사의 위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소통과 여론 형성의 위기, 민주주의의 위기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시급한 진단과 방안 제시가 요구된다. 한국 언론의 위기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안하는 연구들(김영욱, 2011; 손석춘, 2006; 이준웅, 2010; 이준웅·최영재, 2005; 정태철, 2005; 홍숙영·정의철, 2017)이 꾸준히 이어져 왔지만, 이 연구의 다수는 이론적 논의에 머물거나 추상적 대안 제시에 머무른 한계를 드러낸다.

언론 위기 극복은 정치 권력이 추진하는 언론 법제도 개혁 같은 외생적 변화가 아닌 언론 스스로의 내생적 변화 노력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언론 위기에 대한 학술적 논의 역시 언론 현장의 한계점과 변화 가능성을 밝힐 때,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현 시대 한국의 언론이 추구하는 저널리즘의 가치는 무엇인지, 그것이 신문 지면 편집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실천되고 있는지를 현장 기반 연구를 통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신문 제작 과정과 언론 관행, 조직 문화와 저널리즘 가치 실천에 관해서는 국내외적으로 상당수의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김사승, 2008; 임현수·이준웅, 2011; 허철·박관우·김성태, 2009; Fishman, 1980; Gans, 2004; Gitlin, 1980; McCombs & Shaw, 1972; Waisbord, 2013), 참여관찰 연구(유재광·오경수, 2012; 윤영철·홍성구, 1996; 최문호, 2019; 허진아·이오현, 2009; Searle, 1995; Shoemaker & Reese, 1996; Tuchman, 1972)도 다수 누적되었다. 이 연구들은 언론의 문화와 관행이 저널리즘 실천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언론 조직 내부의 문화와 관행이 언론 위기의 원인으로 어떻게 작동했는지에 대한

의미 있는 설명과 해석을 제안한다.

이러한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일간 신문의 초판 발간 이후 지면 편집 과정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일간 신문의 뉴스 생산은 하루 단위로 매일 반복되는 과정이다. 이른 아침 일선기자가 기사 아이템을 발제하여 내부 시스템에 공유하는 것을 시작으로 늦은 밤(혹은 새벽) 최종 수정판을 발행하기까지 편집국은 쉬지 않고 움직인다. 일선기자로부터 선임 기자, 차장, 부장, 편집기자, 부국장, 국장에 이르는 신문사의 구성원들은 하루 종일 기사를 발제하고 취합하고 선택하고, 기사를 작성하고 데스크하며, 지면 계획을 수립하고 지면을 수정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이 연구는 신문사의 편집국에서 이루어지는 이 같은 지면 제작 및 편집 과정 중에서 특히 초판 발행 이후의 지면 편집 과정에 초점을 둔다. 즉 전체 지면 차원의 편집이 완료된 신문 초판 발행 이후 마지막 판을 발행할 때까지의 지면 수정 과정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이때부터 편집국 구성원들은 1면부터 마지막 사설 면에 이르기까지 전체 지면들을 종합적으로 살펴 가면서 본격적인 편집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기사의 추가 및 삭제, 기사 크기의 조정, 게재 면의 이동, 면 단위의 기사 위치변경, 큰 제목 및 소제목 변경, 사진 및 그래픽의 변경 등 다양한 방식의 크고 작은 조정이 이루어진다. 이 조정은 신문이 추구하는 저널리즘의 가치 내지 논조를 전체 지면 차원에서 최종적으로 다듬어 완성해가는 과정으로서 의미가 있다.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지면 제작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신문이 추구하는 가치 내지 규범이 어떤 방식으로 최종 구현되는지, 더 나아가 우리 언론 현장은 어떠한 저널리즘을 실천하며 그 시사점은 무엇인지를 실증적으로 밝혀보고자 한다.

2. 기존 문헌 검토

1) 신문의 편집

신문의 편집은 신문사의 편집국 차원에서 진행되는 신문 제작의 모든 과정을 의미하기도 하고, 편집국 내 편집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지면 편집 과정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배영, 임준수, 맹태균, 한경석, 그리고 강상대(2010)는 전자를 ‘큰 편집’, 후자를 ‘작은 편집’으로 구분해서 설명한다. 이배영 등에 따르면 큰 편집은 기사의 취사선택과 해설·분석 기사의 논조 등 신문의 전체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주된 일인 반면, 작은 편집은 큰 편집에 따라 결정된 제작 방향에 맞춰 신문을 만드는 편집의 마지막 단계이다(31-32쪽). 큰 편집과 작은 편집은 분업화된 상태에서 협조하는 방식을 취하며, 서로의 업무에 대해 잘 알고 도움을 받으면서 분업과 협조가 이루어

질 때 좋은 신문을 발행할 수 있다(33쪽).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강현직(2012)은 기사 계획을 세우고 만들어진 기사를 신문에 게재하기 전 최종적으로 검토하는 신문 제작 전반을 ‘넓은 의미의 편집’으로, 언론사의 사시와 같은 신문사 성격, 보도 대상에 대한 장기적인 성격을 지닌 논조와 시각 등 신문사의 장기방침, 매일매일의 지면 작성을 위한 세부 방침을 ‘좁은 의미의 편집’으로 정의한다(102쪽).

김창숙(2020)은 취재기자가 작성한 기사를 에디터가 받은 이후부터 인쇄 전까지의 업무 과정을 편집(에디팅) 과정으로 본다. 이때 에디터의 역할은 취재기자가 작성한 기사를 검토하는 일이며, 검토는 기사 내용 면에서 전체적인 논리에 이상이 없는지, 일반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설득력이 있는지, 기사의 관점은 어떠한지, 기사 맥락이 필요한 사실들이 모두 수집 확인되었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은 없는지, 사실들이 적절히 배치되었는지 등 작성된 기사를 바탕으로 확인하는 것이다(17쪽). 그녀의 연구에서 에디터는 기사를 검토하고 검증하는 데스크를 뜻하며, 에디팅 과정은 주로 데스크링 과정을 지칭한다. 즉 앞에서 언급한 큰 편집보다는 작은 범위의 데스크링에 해당하고, 최종 지면 편집이 이루어지는 작은 편집의 전 단계로 볼 수 있다.

한편, 좁은 의미에서 편집은 신문 내용을 손질해서 읽기 쉽고, 보기 편하며, 흥미롭게 지면에 배열하는 작업으로 설명되기도 한다(임영호, 2019, 221쪽). 즉, 적합한 형태와 크기의 제목, 기사와 사진 및 그래픽을 내용적인 위계에 따라 배치하여 사건과 현상에 대한 뉴스, 사건의 배경, 전망 등에 대한 해설이 독자에게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김은정·이건실, 2010, 109쪽). 편집의 스토리텔링 기능에 관심을 둔 다른 연구에서는 신문 편집을 기사(내러티브)의 사실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여러 가지 편집 요소(기사, 헤드라인, 이미지)를 동원해 완결된 형식을 만들고 수용자를 유혹하는 기술로 정의하기도 한다(윤여광, 2013, 22쪽).

살펴본 것처럼, ‘신문 편집’이라는 단어는 편집국에서 벌어지는 신문 제작 과정 전체를 지칭하기도 하고 데스크링이나 지면 배치 등 일부 과정을 지칭하기도 한다. 게이트키퍼, 데스크링, 최종 지면 편집 등의 신문 편집 과정은 단계별로 이루어지지만, 각 단계가 서로 독립되어 있지 않고 유기적으로 얽히면서 끊임없이 반복된다. 최종 지면 편집 작업 역시 편집 부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편집국 전체가 유기적으로 협동하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2) 신문 편집의 규범과 관행에 관한 기존 연구

뉴스 생산에 관해서는 저널리즘 관행, 조직 문화, 저널리즘 가치 실천의 관점에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일간 신문의 편집국을 중심으로 한 뉴스 생산 활동에 관한 연구(김시승, 2008; 임현

수·이준웅, 2011; 허철 등, 2009; Fishman, 1980; Gans, 2004; Gitlin, 1980; McCombs & Shaw, 1972; Tuchman, 1972; Waisbord, 2013)와 편집국의 일상을 참여관찰한 연구들(유재광·오경수, 2012; 최문호, 2019; 허진아·이오현, 2009; Searle, 1995; Shoemaker & Reese, 1996; Tuchman, 1972)이 오래전부터 누적되었다. 또한 2000년대 이후에는 저널리즘·경영·기업조직 등 다양한 관점에서 언론사의 조직 문화와 취재 관행을 고찰한 국내의 연구(김건우·김균, 2013; 김동규·김경호, 2005; 이오현·이석호, 2019; 정재민, 2009; 정재민·김영주, 2008; 홍은희, 2012; 홍주현·최선영, 2017)도 찾아볼 수 있다.

언론의 규범과 관행, 전문직 이데올로기, 취재원 의존성 등을 설명하기 위한 전통적 연구 중 일부는 문화기술지(ethnography) 방법을 적용해 왔다(Cottle, 2007, p. 1). 2년이 넘는 기간의 참여관찰을 통해 뉴스의 사회적 재구성 과정을 설명한 터크먼(Tuchman, 1973)의 작업은 대표적인 뉴스 생산에 관한 문화기술지 연구이다. 임영호(2020)는 터크먼(Tuchman, 1972, 1978)의 저작에 대해 뉴스 생산과정과 직업 관행을 독창적으로 개념화하고 맥락화한 모범적인 연구 사례로 평가한 바 있다. 해외에서는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뉴스 제작의 조직적, 관료적, 전문적 속성에 관심을 두는 문화기술지 연구가 다수 발표되었다(Fishman, 1980; Gans, 1979; Gitlin, 1980; Golding & Elliott, 1979; Tuchman, 1978). 이들 연구는 편집국의 공간과 조직체계, 위계질서, 전문직 문화와 관행이 뉴스 생산 과정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는데 기여했다(Cottle, 2007, p. 3). 2000년대 이후에도 편집국 문화에 대한 문화기술지 연구가 이어졌는데, 편집국의 혁신과 변화에 저항하는 언론인에 대한 탐구(Ryfe, 2009)와 아비투스과 편집국 자본 개념을 적용하여 언론 현장을 고찰한 연구(Schultz, 2008)가 그 사례이다. 또한 듀페인과 개리슨(Dupagne & Garrison, 2006)은 신문과 텔레비전, 온라인 서비스가 결합된 융합 뉴스 센터에서 새롭게 요구되는 직업 능력과 편집국의 문화를 탐색하는 연구를 수행했으며, 싱어(Singer, 2008)는 문화기술지 연구가 향후 저널리즘이 당면한 거대한 문화적 전환의 본질과 효과를 탐구하는데 최적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p. 27).

국내에서도 참여관찰을 주요 방법론으로 하는 뉴스 생산에 관한 문화기술지 연구가 누적되었는데, 신문 편집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는 먼저 윤영철과 홍성구(1996)의 작업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지역 일간지에 대한 참여관찰과 지면 내용분석을 통해, 뉴스 제작에 필요한 자원의 많은 부분을 지방자치단체 등 제도화된 뉴스원에 의존하는 지역 언론의 특수성을 분석했다. 허진아와 이오현(2009)은 참여관찰을 통해 지역 무가지의 기사 생산을 둘러싼 구조와 문화, 기자들의 취재 행위와 기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역할 관계를 살펴보았으며, 유재광과 오경수(2012)는 언론사 내부 게시판에 대한 참여관찰을 통해 정치인 발언이 기사화되는 과정을 분석했다. 박동

숙, 조연하, 그리고 홍주현(2001)은 언론사 편집국이 아닌 출입처 공보실을 참여관찰 대상으로 선정하여 언론의 출입처 보도 관행을 분석했는데, 출입처 담당자와 출입 기자가 상호 공생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기자들이 우월의식과 언론의 권력을 뒤에 업고 필요 이상의 힘을 행사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했다. 최문호와 박승관(2018)의 연구와 최문호(2019)의 연구는 보기 드물게 긴 기간(1년 3개월) 참여관찰을 실시한 연구로서, 연구자가 해당 언론사에 몸담은 내부인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예외적인 사례에 해당한다(임영호, 2020, 62쪽). 탐사보도 기자들의 소명 의식에 초점을 맞춘 이 두 연구는, 탐사보도 기자들이 소명 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보도에 투영하는 한편 신념의 과잉으로 인한 오류를 범하기도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언론의 규범과 조직적·관료적·공간적 특성이 저널리즘 실천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언론 조직 내부의 문화와 관행이 언론 위기의 원인으로 어떻게 작동했는지에 대해 많은 통찰과 해석을 제안한다. 이들은 현재 신문이 처한 위기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데 함의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지만, 대부분 케이트키퍼에서 데스크, 에디팅 전반을 포함하는 큰 편집의 차원에서 신문 편집의 규범과 관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는 작은 편집의 차원에서 적용되는 저널리즘 규범에 대한 논의는 찾아보기 어려운데, 한국편집기자협회의 편집 원칙과 조선일보의 윤리규범 가이드라인에서 작은 편집의 규범과 관련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편집기자협회는 최종 편집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편집부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섯 가지로 정리한다. 첫째, 매혹적이고 쾌감을 주는 지면 창조를 통해 독자의 시선을 끌어들인다. 둘째, 지면의 독이성을 높여 뉴스의 소화를 촉진한다. 셋째, 제목의 크기와 위치를 통해 뉴스의 중요도를 등급화한다. 넷째, 범람하는 뉴스의 흐름 속에서 그 주류를 일목요연하게 한다. 다섯째, 고유한 스타일을 통해 신문의 특성을 보여주며 독자에게 친숙감을 준다(이배영 등, 2010, 26-27쪽). 한편, 조선일보 윤리규범 가이드라인(2017. 12. 26. 입력, www.chosun.com)의 제9장은 편집 관련 규범을 규정하고 있다. 제1조는 제목(표제)에 대한 내용으로 제목이 기사의 요약적 내용이나 핵심적 내용을 대표해야 한다는 점,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된다는 점, 불편함이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담고 있다. 제2조는 편집 유의 사항을 담고 있는데, 사내외의 부당한 요구 등에 의한 특정 사안의 고의적인 배제·누락, 주관을 개입하여 기사의 배치와 크기 등을 확대하거나 과장하는 것, 선정적인 편집 등을 금지하고 있다.

3) 신문 편집에 관한 기존 연구

넓은 의미의 신문 편집 관행과 규범에 관한 연구가 폭넓게 진행된 것과 달리 좁은 의미의 신문

지면 편집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다. 디자인 관점에서 신문 편집에 관한 연구가 일부 이루어졌는데, 신문사의 정치적 성향과 편집 디자인의 관련성을 주로 다룬다.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의 편집 디자인을 비교한 김은정과 최인숙(2007)의 연구에 따르면, 50~60대 보수 성향의 독자는 조선일보의 서체와 양식을, 40대 미만의 청·장년층은 한겨레신문의 서체와 양식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65쪽). 또한 조선일보는 정부·여당에 부정적인 사진(공정 12건, 부정 14건)이 다소 많은 반면, 한겨레신문은 긍정적인 사진(공정 22건, 부정 7건)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66쪽). 연구자들은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신문의 편집 디자인이 단순히 시각적, 예술적, 미화적 기능을 갖는 것뿐 아니라 신문의 성향과 의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71쪽). 김은정과 이견실(2010)도 신문 편집 디자인에 나타난 정치적 성향을 분석했는데, 사진의 위치, 구도, 크기를 비교 분석한 결과 보수 신문과 진보 신문의 지면 구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사진의 선택과 크기는 정치 성향과 관련이 있으며 사진의 위치와 구도는 정치 성향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 다른 연구(박선희, 2013)에서는 신문 지면에 포함된 기사 건수와 제목의 크기 등을 중심으로 신문 지면을 분석했는데, 내용이나 논조의 차이는 없었으나 특정 이슈에 대한 주목도와 선정성 차원에서 보수 신문과 진보 신문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 지면의 초판과 최종판의 차이를 분석한 황용석(2000)의 연구를 살펴보면, 초판 발행 이후 57.3%의 기사에 변화가 있었으며 1면과 사회면, 종합면에서 가장 많은 수정이 이루어졌다. 그에 따르면 최종판에 추가된 기사는 특종기사, 시간에 쫓겨서 누락된 기사, 내용을 보완한 기사 등이었으며, 최종판에서 삭제된 기사는 시의성이 떨어지거나 오보일 것으로 추측했다. 또한 기사 제목의 변화는 내용상의 논조 변화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제목이 변했다는 것은 기사를 바라보는 방식이 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신문 지면 편집의 주요 요소 중 제목에 주목하는 연구도 일부 찾아볼 수 있다. 지면 편집에서 제목의 표현과 디자인에 대한 수정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는 문장적 표현뿐 아니라 시각적 표현이 독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신문의 제목은 뉴스 재료가 되는 내용에서 편집자가 선택해서 달기 때문에, 특정 의미를 강조함으로써 독자에게 지향성을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이배영 등, 2010, 106-107쪽). 즉, 제목은 신문의 인상을 결정짓는 요소가 되기도 하고, 그 자체만으로 정보의 가치와 내용을 전달하는 하나의 저널리즘 역할을 한다(117쪽). 강현직(2012)은 편집자의 역할 인식이 제목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는데, 사회통합을 중시하는 편집자는 사시반영과 공정성, 창의성을, 권력감시를 우선하는 편집자는 공정성과 창의성을, 정보 제공을 중시하는 편집자는 공정성과 독자 배려, 요약 기능을 제목 결정에 중요하게 반영하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뉴스 편집에 있어서 사진을 선정하는 과정을 분석한 참여관찰 연구(De Smaele, Geenen, & De Cock, 2017)에 따르면, 보도국 문화, 회사 고유의 스타일, 신문의 리듬, 동료 압력 등과 같은 일상과 조직의 영향이 사진 선정 과정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편집자 개인의 미적 감각과 취향도 중요하게 고려되었으며, 일반적인 뉴스 편집 정책과 윤리 강령 같은 규범도 사진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였다. 무엇보다 편집자 개인의 의사 결정뿐 아니라 뉴스 편집자, 아트 디렉터, 레이아웃 부서와의 협의가 사진 선정에 중요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3. 연구 문제와 연구 방법

1) 연구 문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문 편집에 관한 기존 연구는 주로 게이트키퍼에서 데스크, 에디팅에 이르는 큰 편집을 연구 대상으로 하며, 다양한 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신문사 내에서 관행과 조직문화가 작동하는 과정을 분석하고, 신문 위기 극복의 대안으로서 저널리즘 규범을 실천할 것을 제안해 왔다. 본 연구는 그동안의 연구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신문 편집의 최종 단계에 해당하는 '초판 발행 이후의 지면 편집 과정'에 관심을 둔다. 이 과정은 신문 초판이 발행된 이후 최종판이 발행되기까지의 수정 과정을 의미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오후 5시에 신문 초판이 발행된 이후 수정을 거쳐 오후 9시에 2판이 발행되며 2판은 지역으로 배송된다. 이후 오후 11시 전후에 3판이 발행되고, 3판을 수도권으로 배송하면서 신문 발행은 통상 마무리된다. 하지만 이후에도 편집 작업은 멈추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4판 혹은 5판이 발행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오후 5시 신문의 초판이 발행된 이후 최종 지면 편집과 관련한 편집국 내부의 논의 과정을 현장 관찰 방식으로 살펴보고, 초판에서 수도권 배송이 이루어지는 3판까지의 통상적인 기사 변화, 그리고 3판 발행 이후의 추가적인 기사 수정 내용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신문 지면 편집 과정이 무엇을 추구하는가를 이해하고, 신문이 추구하는 규범이 최종 수정 단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구현되는지 관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연구 문제를 제안한다.

연구 문제 1. 신문 초판 발행 이후, 최종적인 지면 편집 논의 과정은 어떠한가?

연구 문제 2. 신문의 판별 편집에 따른 변화는 무엇인가?

연구 문제 2-1. 초판 발행 이후 3판(수도권 배송용) 발행까지의 통상적인 편집 과정에서의 변화는

무엇인가?

연구 문제 2-2. 3판(수도권 배송용) 발행 이후 이루어지는 추가적인 변화 내용은 무엇인가?

2) 연구 방법

(1) 참여관찰

신문의 편집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종합일간지 A신문사의 편집국에서 참여관찰을 실시했다. 대표 보수지와 진보지를 각각 선정하여 참여관찰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진보 신문사의 허락을 얻지 못하여 보수 신문사인 A사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A신문사는 1920년 창간하였으며 일간지 중에서 가장 높은 발행 부수를 기록하고 있는 대표적인 보수 언론사이다. 동 신문사는 또한 연구가 진행되던 당시 ‘디지털 퍼스트’보다는 ‘저널리즘 퍼스트’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종이신문 제작에 여전히 큰 비중을 두고 있었다. 2021년 9월 9일(목)부터 2022년 2월 18일(금)까지의 기간 중 총 61일 편집국에 머물면서 인터뷰와 관찰을 진행했다. 동기간 중 신문사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출입증을 제공받아 편집국에 주로 상주하며 다양한 방식의 관찰과 소통을 시도했다. 매일 관찰일지를 작성했고 인터뷰 녹취록과 회의 관찰 기록 등을 작성하여 분석에 활용했다. 편집국에서 진행되는 다수의 회의¹⁾ 중에서, 본 연구는 전체 지면 판형이 완성된 후 편집국장 주재로 이루어지는 1차 지면 편집회의와 2차 지면 편집회의에 대한 관찰 일지를 중심으로 초판 발행 이후의 최종적인 지면 편집 과정을 분석했다. 1차 지면 편집회의는 신문 초판(1판)을 발행한 직후 오후 5시 전후에, 2차 지면 편집회의는 신문 2판을 발행한 직후 오후 9시 전후에 열리는 회의이다. 61일의 관찰 기간 중 1차 지면 편집회의에 19회, 2차 지면 편집회의에 13회 참석했다. 참여관찰을 통해 신문 편집 과정의 특징과 그러한 과정에 개입하는 전문가 문화, 생산자들이 편집 과정에 적용하는 특정한 가치를 탐색하고자 했다(이기형, 2010, 303쪽).

(2) 내용 분석

신문 초판 발행 이후 최종판 발행까지의 지면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내용 분석 방법을 적용했다. 판별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편집국 내부의 ‘뉴스 모니터’ 시스템을 통해 내용 분석을 위한 자료

1) 편집국에서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다양한 위상과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크고 작은 회의들이 이어진다. 편집국장이 주재하는 회의를 예로 들면, 수시로 열리는 국장단(편집국장장과 부국장) 회의, 국장과 부장(들) 간 미팅, 편집국장·부국장·부장들이 모두 참여하는 스탠딩회의 및 1차 및 2차 지면 편집회의가 있다. 이외에도 부국장들이 주재하는 회의, 부장들이 주재하는 회의까지 지면 전체 회의의 수를 집계하기 어려울 정도다.

를 확보했다. ‘뉴스 모니터’는 신문 발행 과정에서 내부 구성원(편집국장, 데스크, 편집기자 등)이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지면을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판(板)이 바뀔 때마다 새롭게 편집된 지면을 공유한다. 외부에서는 해당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고 신문사 내부에서만 지면을 내려받을 수 있으며 2개월이 지나면 데이터가 자동 삭제되기 때문에, 연구에 활용한 판별 지면 자료는 희귀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2월 18일까지 총 118일 동안 초판부터 5판까지 발행된 모든 지면(총 11,780면)을 수집했다. 수집한 지면 중 9주(54일)를 표집하여 중심 지면(종합면, 기획특집면, 정치면, 사회면)을 대상으로 기사의 변화를 코딩했다. 초판을 기준으로 분석 대상이 된 지면은 659면(1일 평균 12.2면), 기사 수는 1,799건(1일 평균 33.3건)이다. 기사를 분석 단위로 하여 코딩을 진행했으며, 판 변화에 따른 기사의 변화, 수정 내용, 본문·제목 수정의 속성, 삭제 기사와 추가 기사 등을 분석했다. 언론학 전공 대학원 재학생과 졸업생 5명이 코딩에 참여했으며, 코더들은 코더 교육과 토론 과정을 통해 코딩 유무를 숙지하고 코딩을 시작했다. 총 5,000건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기사의 세부 내용들(위치, 제목, 기사의 크기, 기사의 주제, 취재 대상, 정보원, 사진 및 일러스트레이션 등)이 판별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특정한 기사가 아닌 신문의 전체 기사들을 대상으로 판별 변화를 추적하는 이 방대한 내용 분석 작업은 쉽지 않았다. 코딩 스킴(scheme)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지난한 작업이었다. 코딩 스킴을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시험적인 코딩을 실시하고, 그 과정에서 애매하거나 불일치가 나타나는 유목들을 수정해 다시 코딩을 실시하는 과정이 두 달 가까이 반복되었다. 이 과정을 통해 코더 전원이 합의하는 코딩 스킴을 만들고, 코더들의 코딩 스킴에 대한 이해력과 일치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리고자 하였다. 실제로 코딩된 변수들에는 기계적으로 체크하는 사항들(기사가 배치된 지면, 기사 크기, 위치 등)도 있었고, 코더들의 주관적 내지 정성적 판단을 요구하는 변수들도 있었다. 그중 후자의 일치도가 80~90%에 달했을 때 코딩 스킴을 만드는 과정을 종료하고 코더들에게 코딩 분량을 할당하였다. 코딩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온라인을 통해 판단이 어려운 유목에 대한 논의와 조정을 지속함으로써 코딩의 일치도를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연구진은 또한 코딩이 종료된 후 코딩 아웃라이어 점수들을 살펴 개별 코더들이 코딩 과정에서 범한 오류는 없는지 점검하였다. 본 연구의 핵심적인 변인에 해당하는 ‘기사 본문 수정의 속성’, ‘주 제목의 수정 내용’, ‘기사의 중심 주제’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다음과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되고, 유목이 구분되고, 코딩되었다.

‘기사 본문 수정의 속성’은 이전 판의 기사와 새로운 판의 기사를 비교하면서 읽어보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판단하여 코딩했다. 정보 추가, 정보 삭제, 가독성 제고, 기자의 해석·의견 추가, 기자의 해석·의견 삭제, 기사 완성의 유목으로 나누었는데, 하나의 기사에서 다양한 유형

의 수정이 동시에 발견되는 경우 중복해서 코딩했다. ‘정보 추가’는 통계자료나 인터뷰, 관계자 신상 등을 추가하거나 내용을 부연 설명하는 경우, ‘정보 삭제’는 인터뷰나 사례 등의 정보를 삭제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가독성 제고’는 문장을 가다듬어 이해하기 쉽게 수정하거나 문법적 오류와 비문 등을 수정하는 경우이다. ‘기자의 해석·의견의 추가’와 ‘기자의 해석·의견의 삭제’는 팩트 이외에 기사 내용에 대한 기자의 예측, 해석, 판단 등이 추가 혹은 삭제된 것을 의미한다. ‘기사 완성’은 이전 판에서 미완성이었던 기사를 완성한 경우로 바이라인을 추가하는 등의 단순한 수정도 여기에 포함된다.

‘주 제목의 수정 내용’ 역시 이전 판과 새로운 판의 주 제목을 비교한 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판단하여 코딩했다. 표현의 정확성 제고, 팩트 강화, 가독성 개선, 부정적 표현의 약화, 해석·의견의 강화 등의 유목으로 나누어 분석했으며, 하나의 기사에서 여러 유형의 수정이 발견되는 경우 중복해서 코딩했다. ‘표현의 정확성 제고’는 정확한 단어를 사용하고 기준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것을 뜻하며 ‘팩트 강화’는 수치나 객관적 자료 등을 수정하여 팩트를 바로잡는 경우이다. ‘가독성 개선’은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교체하거나 어순 등을 바로잡아 비문을 수정하는 경우이고, ‘부정적 표현의 약화’는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이거나 혐오하는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대체하는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편집자의 해석과 판단을 덧붙이는 경우 ‘해석·의견의 강화’로 판단했다.

‘기사의 중심 주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스포츠, IT·과학, 세계, 날씨로 분류했다. 지면의 제목(사회, 정치, 경제, World 등)과 기사 내용을 참고하여 2개까지 중복코딩했다. ‘정치’는 대통령 선거, 대장동, 대통령·대통령가족·청와대, 국회·정당·정치단체·정치인과 그의 가족, 국무총리 등 주요 헌법기관, 외교·안보, 북한·통일 관련 이슈가, ‘경제’는 국가 차원의 재정·금융·산업 정책, 기업, 경제 관련 시민단체, 노동·취업, 가계 경제·자영업 관련 내용이 각각 해당한다. ‘사회’는 코로나, 보건·복지, 사건사고·재난재해, 시민운동, 교육, 미디어 정책, 환경, 여성, 수도권, 지역 문제 등에 관한 기사, ‘문화와 스포츠’는 공연·예술·학술·미디어·영화·출판 관련 기사, ‘IT·과학’은 AI·IT 기술, 의료 정보, 생명과학 관련 기사, ‘세계’는 해외 코로나, 국제 정치와 분쟁, 국제 경제와 산업, 해외 주요 사건·사고·동향에 관한 기사를 각각 코딩했다.

4. 연구 결과

1) 지면 편집의 논의 과정 (연구문제 1의 결과)

이른 아침 일선기자의 기사 아이템 발제로 시작되는 편집국의 게이트키퍼 과정은 오후 2시 30분

전후에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기사 작성이 시작된다. 기사 작성과 데스크 작업이 마무리되는 시점부터 편집기자는 기사의 배열, 제목 뽑기, 사진 선정 등의 편집을 시작하며, 오후 5시 전후에 신문 초판이 발행된다. 이후 데스크(국장, 부국장, 부장, 차장)를 중심으로 편집회의를 여는데, 이 회의에서는 국장을 중심으로 초판의 지면을 검토하면서 기사의 추가삭제, 지면 배치와 제목, 기사의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다. 1차 지면 편집회의가 끝나면 주요 부서(정치부, 사회부, 경제부, 국제부 등)는 부장을 중심으로 데스크 회의를 열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기사의 수정 방향을 정하고 이를 일선기자들에게 전달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 기사의 취합이 완료되면 편집기자들은 다시 데스크와 함께 지면을 수정하여 오후 9시 전후에 2판을 발행하고 2차 지면 편집회의를 개최한다. 이 회의에는 1차 지면 편집회의에 참여했던 데스크와 더불어 주요 지면(1면과 정치면 등)의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도 일부 참석한다. 이는 편집국에서 하루 종일 이루어지는 회의 중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회의이며, 1차 지면 편집회의와 유사한 방식으로 지면을 함께 모니터링하면서 기사의 제목과 사진, 내용, 배치 등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2차 지면 편집회의 역시 국장의 주재로 진행되며 회의 전반에서 국장이 가장 많은 목소리를 내고 회의를 주도한다. 이후 주요 부서 단위의 회의를 거쳐 편집회의에서 논의한 수정 사항 등을 반영한 후 오후 11시 전후에 3판을 발행하며, 인쇄 과정을 거쳐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배송된다. 3판 발행 이후에도 필요에 따라 수정을 거쳐 4판과 5판이 발행되기도 한다.

(1) 1차 지면 편집회의

1차 지면 편집회의는 초판을 발행한 직후 국장 주재로 열리는 편집회의이다. 61일간의 참여관찰 기간 중 1차 지면 편집회의에 19회 참석하여 관찰했다. 19회의 참여관찰 기록을 토대로 초판 편집회의의 과정과 주요 논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오후 5시 전후에 신문 초판이 발행되어 사내 ‘뉴스 모니터’ 시스템에 업로드되면 바로 초판 편집회의가 시작된다. 부국장이 시스템상에 신문 지면이 탑재된 것을 확인한 후 “회의합시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 편집국장, 부국장, 각 부서의 데스크, 주요 기사의 담당 기자 등이 회의실로 하나둘 모여들고 바로 회의를 시작한다.²⁾ 초판은 종이신문으로 발행하지 않으며 온라인상으로

2) 별도의 절차 없이 부국장의 말 한마디로 회의를 시작할 수 있는 이유는 편집국의 열린 공간이다. 편집국은 중앙의 부국장 데스크를 중심으로 전체가 하나의 공간이며, 회의실 역시 편집국 공간의 연장으로 별도의 문 없이 열린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만 발행하기 때문에, 큰 화면에 지면을 띄워놓고 함께 살펴보면서 회의를 진행한다. 주로 편집국장
장이 질문하거나 지적하면 부국장과 부장 등이 답변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1면부터 거의 모든 지면을 하나하나 검토하면서 기사의 위치와 제목, 사진, 내용 등에 대해
논의한다. 40~50분의 짧은 회의이지만 모든 지면에 실린 기사를 거의 전부 한 번씩 점검하는
과정을 거친다. 회의에서 이루어지는 논의의 많은 부분은 제목과 관련한 것이다. 제목이 기사의
내용을 잘 전달하는지, 기사의 중요한 논점을 잘 드러내는지,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사용하는지,
적절한 단어를 선택했는지, 표현이 지나치지는 않은지 등을 점검한다. 제목에 집중하는 회의 과
정은 단순히 알기 쉽고 정확한 표현으로 제목을 수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기사의 아머³⁾를 잡고
기사를 통해 무엇을 강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논조 생산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황용석(2000)
이 지적한 것처럼 기사의 제목 변화가 곧 기사의 논조 변화로 연결되는 것이다.

제목이 방향을 잘 잡고 기사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편집국장은 ‘제목이 무
엇을 의미하는지’와 ‘제목의 내용이 기사 본문에도 언급되어 있는지’를 질문한다. 기사의 내용과
동떨어진 내용이거나 핵심 메시지를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는 제목에 대해서는 수정 요청이 이루
어진다. 예컨대,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했다는 내용을 담은 2021년 11
월 17일자 1면 톱기사의 제목을 둘러싸고 열띤 논의가 이루어졌다. 초판의 제목은 「관계개선 나
선 바이든, ‘하나의 중국’ 첫 인정」이었다. 바이든이 시진핑의 체면을 살려준 것은 사실이지만 하
나의 중국 원칙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하나의 중국 원칙 지지’로 제목을 변
경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하나의 중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처음이므로 첫 인정으로
보아야 하고 이 점을 강조하지 않는다면 해당 기사를 1면 톱기사로 올릴 필요가 없다는 담당 부
장의 반박이 있었다. 이 제목이 중국의 논리만 일방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첫 인정
이 확실한지 등에 대해 진지한 토론이 이어졌고, 저녁 9시 2판에서는 「바이든, 시진핑에 “하나의
중국 원칙지지”」로 변경되었다.⁴⁾

위의 사례처럼 일부 민감한 이슈에 대해 제법 긴 시간을 할애하여 토론이 이루어지는 한편,
대부분의 사안은 편집국장이 간단히 지적하고 담당 부장 등이 짧게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처럼 효율적인 회의 진행은 신문 발행을 앞두고 시간이 부족해서이기도 하지만, 회의 전에 이

3) 기자들의 은어로 ‘기사의 주제나 핵심’을 이르는 말(고려대 한국어대사전)

4) 「바이든, 시진핑에 “하나의 중국 원칙지지”」라는 제목에 대해 2차 지면 편집회의에서도 논쟁이 지속되었다. 관련 의
신 기사의 영어 표현(break through)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에 대한 논쟁과 더불어 미국과 중국의 입장을 균형 있게 반
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결국 2차 지면 편집회의에서도 최종 합의를 이끌지 못했으며, 회의 이후까지 논쟁이 계속
된 후 4판에서 해당 톱기사의 제목은 「바이든 “하나의 중국 지지…대만은 현상 유지”로 최종 변경되었다.

미 부서별로 협의를 거친 이후이거나 편집국장의 짧은 몇 마디로 충분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편집국 내부의 위계질서 때문이다. 지면 편집회의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편집국장이 회의 전반을 주도하면서 지면 전체의 방향성과 논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2차 지면 편집회의

2차 편집회의는 2판이 발행된 밤 9시 이후에 시작된다. 1차 지면 편집회의에서 검토한 수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발행한 종이신문 2판을 앞에 놓고 다시 1차 지면 편집회의와 유사한 검토 과정을 반복한다. 연구자들은 61일간의 관찰 기간 중 2차 편집회의에 13회 참석했다. 회의는 약 50~60분 동안 진행되는 1차 지면 편집회의보다는 10~20분 짧은 40분 내외로 진행된다. 전체 지면이 아니라 수정 사항이 있는 지면을 위주로 검토하므로 회의 시간이 자연스럽게 짧아지는 것이다.

2차 지면 편집회의에서도 1차 지면 편집회의와 마찬가지로 제목에 대한 언급이 가장 많았다. 다만, 1차 지면 편집회의에서는 제목이 기사의 내용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기사의 핵심 주제를 잘 드러내는지, 적절한 방향으로 논조를 잘 설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많은 한편, 2차 지면 편집회의에서는 제목의 표현이 정확한지와 적절한 단어를 사용하는지 등에 대한 논의가 더 많다. 1차 지면 편집회의에서도 적절한 단어를 사용하여 제목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시도가 있지만, 2차 지면 편집회의에서 좀 더 정밀한 토론을 거쳐서 가장 적합한 단어를 적용하려는 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 2021년 12월 28일 화요일자 코로나 백신 관련 기사를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 동 기사의 2판 제목은 「화이자 ‘코로나 치료제’ 내년 1월 중순 도입」이었는데, ‘도입’이라는 단어의 뜻을 묻는 질문이 있었다. 약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건소가 약을 전달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도입’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담당 부장의 설명에 대해, 도입이라고 하니 당장 처방받아서 먹는 것으로 이해되지 않으므로 ‘복용’이라고 하자는 제안이 이루어졌다. 복용이라는 표현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담당부장의 반응이 있었고 회의에서의 논의는 여기에서 마무리되었다. 추후 발행된 3판을 확인한 결과 해당 기사의 제목은 「화이자의 코로나 치료제, 내년 1월말 투여」로 변경되었다. ‘도입’에서 ‘복용’을 거쳐 결국 ‘투여’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이다. 한편 제목을 수정하면서 기사 본문 내용도 함께 수정했는데, ‘~ 현장에 도입되는 시기는 빨라도 다음 달 중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에서 ‘~ 현장에서 환자에게 투여되는 시기는 다음 달 말이 될 것으로 보인다’로 변경하여, 치료제가 실제로 환자에게 투여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2차 지면 편집회의는 1차 지면 편집회의의 반복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유사한 방식으로

유사한 내용들을 반복해서 논의하고 있었다. 편집국장의 주도로 전체 기사를 처음부터 하나하나 검토하면서 빠르게 문제를 지적하면 담당 부장 등이 그에 빠르게 응답하는 방식이다. 1차 지면 편집회의 분석에서 언급한 것처럼 편집국의 견고한 위계질서 속에서 간결한 언어가 오고 가기 때문에 처음에는 연구자들이 회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예컨대 편집국장이 “이건 (이 기사) 왜 여기 있지?”라고 지나가듯 언급하면, 회의 석상에서 더 이상의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음 판에서는 해당 기사가 빠지고 다른 기사가 들어오는 식이다. 1차 지면 편집회의에 대한 관찰에서와 마찬가지로 편집국장이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지면 편집 과정을 책임지는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2) 판별 편집에 따른 변화 (연구문제 2의 결과)

(1) 종합적 변화 (초판~5판)

초판 발행 후 5판에 이르기까지 지면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다음의 <Table 1>과 같이 요약된다. 분석 대상이 된 초판 기사는 모두 1,799개로, 하루 평균 33.3개다. 최종 편집 과정에서 판이 변할 때마다 나타나는 기사의 변화는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①직전 판의 내용과 편집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무수정 유지), ②기사는 유지되나 내용(제목, 사진, 캡션, 기사 본문 등)이 일부 수정되는 경우(수정 유지), ③새롭게 기사가 추가되는 경우(추가), ④기존의 기사를 삭제하는 경우(삭제)가 그것이다. 표에는 판이 달라지면서 이러한 네 가지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정리되어 있다. 먼저, 2판에서는 초판에서 발행되었던 기사 중 12.2%(223건)만이 그대로 유지되었고 86.4%(1,576건)의 기사는 내용이 수정되었다. 또한 7.7%(141건)의 기사가 추가되면서 6.4%(116건)의 기사가 삭제되었다. 3판으로 가면서 기사의 변화는 조금 줄어들었는데 44.2%(808건)가 수정 없이 유지되었고 56.0%(1,024건)는 기사가 유지된 채 수정되었으며, 3.1%(56건)가 추가되고 3.2%(59건)가 삭제되었다. 절반 이상의 기사가 수정되는 등 3판 까지도 적극적인 편집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한편 3판이 발행된 이후 4판과 5판에서는 수정이 크게 줄어든다. 4판에서는 96.4%(1,764건)가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3.6%(65건)의 기사가 수정되었고 추가 및 삭제 기사가 각각 3건과 2건이었다. 5판에서는 3건의 기사가 수정되었으며 추가 및 삭제 기사는 각 1건씩으로 수정 기사가 극히 드물었다. 요약하면, 초판에서 3판까지는 일상적인 편집회의를 거쳐 많은 기사에 대한 적극적인 수정이 이루어지는 한편, 4판과 5판에서는 일부 기사에 한정해서 예외적인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Table 1. Changes in Articles According to Changes in Editions (frequency (%))

기사 변화	초판	2판	3판	4판	5판
처음 기사	1,799				
유지	무수정	223 (12.2)	808 (44.2)	1,764 (96.4)	1,827 (99.8)
		수정	1,576 (86.4)	1,024 (56.0)	65 (3.6)
추가		141 (7.7)	56 (3.1)	3	1
삭제		116 (6.4)	59 (3.2)	2	1
전체 기사 수	1,799	1,824	1,829	1,830	1,830

(2) 초판 발행 이후 3판(수도권 배송용)까지의 변화 (연구문제 2-1의 결과)

초판 발행 후 3판까지의 편집 과정에서 일어난 기사의 변화는 <Table 2>에 정리되어 있다. 2판에서는 적극적인 수정이 이루어지는데, 기사 본문(69.2%)과 주제목·중간제목·어깨제목⁵⁾ 등을 포함한 기사 제목 전체(66.4%)에 대한 수정이 전체 기사의 3분의 2를 차지하며, 전체 기사의 절반은 주 제목(50.3%)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졌다. 사진의 캡션 수정(21.4%)이나 사진 수정(17.2%), 그래픽 등 기타 이미지(9.1%)에 대한 수정도 전체 기사에 대한 비율로 보면 많지 않지만, 모든 기사에 사진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초판이 독자에게 배달되지 않는 미완성 버전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2판에서 이처럼 많은 수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발행된 2판은 인쇄되어 지방 등으로 배송이 되는데, 2판 발행 이후에도 수정은 적극적으로 지속된다. 3판에서 기사 제목 전체에 대한 수정은 37.6%였으며, 기사 본문과 주 제목에 대한 수정은 각각 32.8%, 22.9%로 나타났다.

Table 2. Modifications in Articles (the 2nd & 3rd Edition, frequency (%))

수정 항목	2판	3판
기사 본문	1,263 (69.2)	600 (32.8)
기사 제목 전체	1,211 (66.4)	688 (37.6)
주 제목	918 (50.3)	419 (22.9)
사진	313 (17.2)	82 (4.5)
사진의 캡션	391 (21.4)	117 (6.4)
기타 이미지	166 (9.1)	96 (5.2)
전체 기사 수	1,824	1,829

2판에서 발행된 1,824건의 기사 중 69.2%에 해당하는 1,263개 기사의 본문이 수정되었

5) 주 제목은 주로 기사 상단에 제시되는 가장 큰 크기의 헤드라인을, 중간 제목은 본문 안에 끼워 넣어 편집한 작은 제목을, 어깨 제목은 박스 형태로 디자인하여 주로 기사가 시작되는 왼쪽 상단에 제시하는 제목을 각각 의미한다.

는데, 정보를 추가 삭제하거나 가독성을 높이는 경우가 많았으며 기자의 해석·의견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경우는 5% 이하로 드물었다(〈Table 3〉 참고). 또한 2판에서는 1판에서 완성하지 못한 기사를 완성하는 방향으로 수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3판에서 수정된 기사의 비율은 32.8%(1,829건 중 600건)로 대폭 줄어들었으며, 2판과 마찬가지로 정보를 추가 및 삭제하거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수정이 본문 수정 기사의 절반 이상이었다. 기타로 분류된 경우는 단순한 오류 수정, 레이아웃을 맞추기 위한 문단 비꾸기나 문장 길이 조절, 새로운 사건 발생 등으로 인한 본문 수정, 문장 순서나 문단 순서 변경 등이다.

Table 3. Characteristics of Modifications in Articles (the 2nd & 3rd Edition, frequency (%))

본문 수정의 속성	2판	3판
정보 추가	687 (54.4)	334 (55.7)
정보 삭제	606 (48.0)	331 (55.2)
가독성 제고	550 (43.5)	351 (58.5)
기자의 해석/의견 추가	65 (5.1)	28 (4.7)
기자의 해석/의견 삭제	44 (3.5)	20 (3.3)
기사 완성	668 (52.9)	17 (2.8)
기타	16 (1.3)	14 (2.3)
본문 수정 기사 수	1,263 (100.0)	600 (100.0)
전체 기사 수	1,824	1,829

* 중복 코딩. 기사 본문의 수정이 있었던 기사 수를 분모로 퍼센트를 계산함.

기사 제목의 수정은 표현의 정확성을 제고(38.5%, 38.9%)하거나 팩트를 강화(31.8%, 28.4%)하기 위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가독성을 개선하기 위한 경우도 2판과 3판에서 각각 25.4%와 22.0%를 차지했다. 그밖에 해석과 의견을 강화하기 위한 경우도 9.6%(2판), 7.6%(3판)였으며, 부정적 표현을 약화하기 위한 수정은 가장 적은 비율을 차지했다(〈Table 4〉 참고). 정확한 표현을 사용하여 정확한 사실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려는 방향으로 제목 수정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해석과 의견을 강화하기 위한 수정도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4. Characteristics of modifications in titles (the 2nd & 3rd Edition, frequency (%))

주 제목의 수정 내용	2판	3판
표현의 정확성 제고	353 (38.5)	163 (38.9)
팩트 강화	292 (31.8)	119 (28.4)
가독성 개선	233 (25.4)	92 (22.0)
부정적 표현의 약화	41 (4.5)	14 (3.3)
해석/의견의 강화	88 (9.6)	32 (7.6)
주 제목을 수정한 기사 수	918 (100.0)	419 (100.0)

* 중복 코딩. 주 제목을 수정한 기사 수를 분모로 비율을 계산함.

2판과 3판에서 어떤 기사가 삭제되고 추가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삭제 및 추가 기사의 중심 주제를 살펴보았다(Table 5) 참고). 분석 대상 전체 기사 중 초판에 발행한 기사는 1,799건이었는데 2판에서 6.4%에 해당하는 116건의 기사가 삭제되었으며, 7.8%에 해당하는 141건의 기사가 추가되었다. 삭제된 기사의 중심 주제는 정치가 56.9%(66건), 사회가 39.7%(46건), 경제가 16.4%(19건)이었으며, 다음은 세계, 문화·스포츠, IT·과학의 순이다. 추가된 기사 주제도 삭제된 기사 주제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는데 사회가 47.5%(67건), 정치가 44.0%(62건), 경제가 16.3%(23건)이었고, 다음은 문화·스포츠, 세계, IT·과학의 순이다. 사회 기사의 경우 삭제된 기사가 46건인 한편 추가 기사가 67건으로 나타나, 삭제와 추가 기사가 비슷한 수치를 보이는 다른 분야의 기사에 비해 삭제보다 추가가 훨씬 많았다. 한편, 3판에서는 59건의 기사가 삭제되고 56건의 기사가 추가되었는데, 이는 각각 2판에 발행한 전체 기사 1,824건의 3.2%와 3.1%에 해당한다. 삭제 및 추가 기사의 비율이 2판의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3판에서도 정치 주제의 기사가 가장 많이 삭제(47.5%, 28건) 및 추가(50.0%, 28건)되었으며, 다음으로는 사회(삭제 33.9%, 20건; 추가 32.1%, 18건)와 문화·스포츠 기사(삭제 18.6%, 11건; 추가 25.0%, 14건)의 순이었다. 2판에 비해서 3판에서 문화·스포츠 기사의 삭제와 추가가 많았던 것은, 분석 대상 기간에 개최되었던 베이징 올림픽의 영향인 것으로 풀이된다. 베이징 올림픽의 주요 경기가 한국 시간으로 늦은 밤(2판 발행 이후)에 열리는 경우가 많아 속보 형태로 기사를 추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사건·사고 등 속보성 기사가 주를 이루는 사회 분야 기사의 삭제와 추가가 많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정치면의 삭제와 추가가 가장 많았는데, 정치 이슈에 대해 더 신중한 기사 선택과 교체가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Table 5. Key topics for deleted articles and additional articles (the 2nd & 3rd Edition, frequency (%))

중심 주제	2판		3판	
	삭제 기사	추가 기사	삭제 기사	추가 기사
정치	66 (56.9)	62 (44.0)	28 (47.5)	28 (50.0)
경제	19 (16.4)	23 (16.3)	6 (10.2)	2 (3.6)
사회	46 (39.7)	67 (47.5)	20 (33.9)	18 (32.1)
문화·스포츠	5 (4.3)	6 (4.3)	11 (18.6)	14 (25.0)
IT·과학	4 (3.4)	2 (1.4)	2 (3.4)	1 (1.8)
세계	9 (7.8)	6 (4.3)	4 (6.8)	5 (8.9)
날씨	2 (1.7)	2 (1.4)	2 (3.4)	0 (0/0)
합계	116 (100.0)	141 (100.0)	59 (100.0)	56 (100.0)

* 한 기사당 27개까지 중복 코딩

(3) 3판(수도권 배송용) 발행 이후의 추가적인 변화 (연구문제 2-2의 결과)

① 4판

밤 9시 편집회의를 거쳐 수도권 배송용 3판을 발행한 이후에도 추가로 수정이나 보완의 필요가 발생하면 편집국 내부 당직자들의 논의를 거쳐 4판을 발행한다. 공식적인 회의 절차를 통해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늦은 심야시간대에 이루어지는 수정이라는 점에서 2판과 3판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편집과 달리 긴급하거나 중요한 사안 혹은 중대한 오류에 대한 수정이 대부분일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분석 대상 기간(54일) 중 4판이 발행된 날은 29일(53.7%)로 절반이 넘는다. 기사 단위에서 살펴보면 삭제된 기사가 2건, 추가된 기사가 3건, 수정된 기사가 65건이었다. 4판에서 삭제 및 추가된 기사의 제목은 <Table 6>과 같다.

기사의 삭제-추가는 3판 발행 이후 주요 사건이 발생했을 때 기존 기사를 삭제하고 새로운 기사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9주의 기간 중 3개의 기사가 추가되었으므로 3판 발행 이후 4판에서 새로운 기사가 추가되는 사례는 3주에 1건 정도에 해당한다. 추가 기사 3건은 모두 뉴스 가치가 높은 사건이 발생하여 기존 기사를 삭제하거나 기존 기사의 사진을 삭제하고 해당 자리에 새로운 기사를 추가한 경우이다.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11월 3일 10면에서는 기존 기사의 사진을 삭제하고, 기사다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의 단시간 정상회담을 사진기사로 추가했다. 12월 17일 10면에서는 범죄자 조두순 피습 사건을 추가하고 기존의 판결 기사를 삭제했으며, 2월 15일 2면에서는 동계올림픽 러시아 피겨 선수 소식 대신 국내 여자 컬링 승리 소식으로 대체했다. 4판에서의 기사 삭제와 추가는 외교적으로 중요한 이슈, 인지도와 관심도가 높은 범죄자 관련 소식, 국내 선수팀의 올림픽 승리 등 뉴스 가치가 높은 이벤트가 새롭게 발생했을 때 예외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6. Title of Deleted Articles and Additional Articles (the 4th edition)

날짜/지면	삭제 기사	추가 기사
11월 3일 10면(종합)	없음 (기존 기사의 사진 삭제)	기사다 총리,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만남... 단시간 정상회담 (사진기사)
12월 17일 10면(사회)	만취운전 19초만에 광 여친 숨지게한 30대 살인 혐의는 무죄	아동성범죄자 조두순 집에서 피한에 피습
2월 15일 2면(투데이)	발리야바 구사일생...도핑에도 오늘 피겨 싱글 출전	일본에 '항복' 받아낸 여자 컬링

4판에서 수정된 기사는 모두 65건이었는데 본문 수정이 39건, 주 제목 수정 25건, 사진 수정 5건, 사진의 캡션 수정 7건, 기타 이미지 수정 5건 등이었다. 4판에서 본문 수정이 이루어진 39개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독성 제고가 25건(64.1%)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정보의 삭제(24건, 61.5%)와 추가(21건, 53.8%)의 순이었다. 이 밖에 기자의 해석·의견 추가와 삭제가 각각 5건(12.8%), 1건(2.6%)이며 기타가 4건이다. 2판과 3판에서의 본문 수정 속성과 비교했을 때 '가독성 제고'의 비율과 '기자의 해석·의견 추가' 비율이 조금 높게 나타났다. 이 가운데 기자의 해석·의견이 추가 및 삭제된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 <Table 7>과 같다.

Table 7. Cases that the Reporter's Interpretation and Opinion were Added or Deleted (the 4th edition)

날짜/지면	기사제목	3판	4판
추가 사례	11월 1일 3면 시진핑·푸틴 불참 ...탄소 감축 합의 실패 우려	-	산업혁명 이후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있는 선진국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가 집중되는 개도국 간의 갈등도 풀어야 할 과제다.
	11월 1일 8면 日 5개 야당 단일화 효과...1강 체제 견제할 발판 마련 (4판)	-	하지만 기사다 총리의 정권 기반이 안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난 달 자민당 총재 선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급감 등 자민당에 유리한 요소가 많았음에도 과반 확보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고전했기 때문이다.
	2월 8일 2면 중국과 스키지도 없었는데...황대현·이준서 황당 실격	중국의 홈 어드밴티지는 결승전에도 이어졌다.	중국의 노골적인 홈 어드밴티지는 결승전에도 이어졌다.
	2월 10일 1면 오늘부터 셀프방역...저소득층 더 서럽다	-	다행히 음성이 나왔지만 이틀치 식비를 날린 셈이다.
	2월 11일 6면 자가검사키트 총분하다더니...정부, 온라인 판매금지	-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자로서 지자체 집중관리가 필요한 자'로 다시 변경했다.	2년 전 벌어졌던 '마스크 대란' 당시를 연상시키는 조치다.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자로서 지자체 집중관리가 필요한 자'로 다시 변경하면서 혼선을 빚었다.
삭제 사례	11월 1일 8면 日 '5개 야당 단일화' 통했다...대도시서 세력결집 성공(3판)	기사다 총리로도 40석 이상을 잃는다면, 자민당 내에선 내년 참의원 선거 전 다시 '총재 교체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다.	삭제

11월 1일 3면 사례는 시진핑과 푸틴이 G20 회의에 불참하면서 탄소감축 합의가 실패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기사이다. 4판에서 한 문장이 추가되었는데, G20 정상회의에 남겨진 과제에 대한 기자의 의견이 담겨있다. 두 번째 사례는 11월 1일 8면의 일본 총선 관련 기사이다. 이 기사는 3판이 발행된 이후 선거 결과가 확정되면서 제목과 사진 본문 내용 등이 전반적으로 수정되

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수정 과정에서 선거 결과의 의미에 대한 기자의 해석과 판단이 추가되었다. 세 번째 사례(2월 8일 2면)는 베이징 올림픽 쇼트트랙 경기에서 우리 선수가 실격할 경기에 대해 다루었는데, 4판에서 '노골적인'이라는 단어를 추가하여 비판적인 기자의 시각을 반영하였다. 네 번째 사례(2월 10일 1면)는 코로나 방역체제가 변경되면서 저소득층 등이 겪는 어려움을 다루고 있는 기사이다. 4판에서 자가검사키트로 검사를 받은 사례를 다루면서 '다행히 음성'이 나왔지만 이틀치 식비를 날린 셈이다라는 기자의 해석을 추가하여 저소득층이 겪는 어려움을 강조했다. 마지막 사례(2월 11일 6면)도 코로나 방역 관련 사례였는데,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 금지 등을 다룬 기사이다. 4판에서 '2년 전 벌어졌던 마스크 대란 당시를 연상시키는 사례'라는 기자의 의견을 추가했으며, 또 다른 문장에서는 '~ 혼선을 빚었다'라는 기자의 판단을 추가하여 비판적 시각을 강조했다.

한편 기자의 해석·의견이 삭제된 사례는 1건이었는데, 이 사례는 앞서 언급한 기자의 해석·의견이 추가된 사례 중 두 번째 사례(11월 1일 8면)와 관련이 있다. 이 기사는 일본 총선 결과를 다룬 기사로서 앞에 언급한 것처럼 제목과 사진, 그래픽, 본문 내용 등에 전반적인 수정이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기자의 판단이 언급된 문장이 하나 삭제되고 새로운 의견을 담은 다른 문장이 추가되었다. 특정한 판단이나 의견을 삭제하거나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상황 변화에 따른 의견 삭제 및 추가로 볼 수 있다.

4판에서 주 제목이 수정된 기사는 모두 25건이었다. 이 가운데 기사의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주 제목을 함께 수정한 경우가 7건이며, 지면 레이아웃이 변경되면서 주 제목의 길이를 수정한 경우가 4건, 제목의 초점을 변경한 경우가 4건, 나머지 10건은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수정이었다. 제목의 초점을 변경한 경우는 모두 코로나 방역과 관련한 기사였는데, 주 제목과 중간 제목을 맞추는 방식으로 강조점을 달리한 사례이다. 예를 들면, <재택환자 85%, 건강 모니터링 중단…검사·투약 스스로>(3판)에서 <재택환자 85%, 의료물품도 챙겨야>(4판)로 수정하여 의료물품 키트를 제공하지 않게 되는 변화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수정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한편, 주 제목에서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수정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단어(팩트)를 추가하여 정확성을 높이는 경우, 단어(혹은 수치)를 교체하여 정확하게 표현하는 경우, 표현을 수정하여 느낌을 살리거나 강조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Table 8>에 각각의 구체적인 사례가 정리되어 있다. 12월 18일 12면의 단어 추가 사례를 보면, '2500 시공사업'에서 '2500 태양광 시공사업'으로 수정하여 어떤 시공사업인가를 정확하게 제시하는 방식으로 수정이 이루어졌다. 2월 10일 2면 사례의 경우 '최민정의 막판 질주' 대신 '최민정의 막판 스피트'로 수정하여 더 적합한 단어를 선택함으로써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했다.⁶⁾

Table 8. Examples of Corrections Made to Increase the Accuracy of the Main Title (the 4th edition)

정확성 제고	날짜/지면	3판 제목	4판 제목
단어 추가	12월 2일 3면	정부, 오미크론 확인에 7일...일본은 이틀만에 진단	정부, 오미크론 확인에 최장 7일...일본은 이틀만에 진단
	12월 3일 5면	이준석 "인산 전략 큰 변화 없다면 신대위 참석않겠다"	이준석 "인산 전략 큰 변화 없다면 신대위 출범식 불참"
	12월 4일 8면	주차장 짓고, 도로 깔고...여야 의원들, 지역구 예산 4000억 밀어넣기	주차장 짓고, 도로 깔고...의원들 '밀어넣기에 SOC 예산 4000억 늘어
	12월 18일 12면	특혜 의혹 불거진 '2500억 시공사업'은 감사 안했다	특혜 의혹 '2500억 태양광 시공사업'은 감사 안했다
단어 변경	10월 22일 12면	충간소음 기준, 현실에 맞게 강화한다	충간소음 기준, 현실에 맞게 낮춘다
	1월 20일 14면	11배 올랐던 신라젠 상장폐지 가담 소액주주들 "왜 상장때뎀 못걸어냈냐"	12배 올랐던 신라젠 상장폐지 가담 소액주주들 "왜 상장때뎀 못걸어냈냐"
	2월 10일 2면	최민정의 막판 질주 女 3000m 계주 결승행	최민정의 막판 스피트 女 3000m 계주 결승행
	2월 11일 6면	노버백스, 14일부터 '독거노인·요양시설 미접종자'부터 맞는다	노버백스, 14일부터 '독거노인·요양시설 미접종자 '가 맞는다
표현 변경	2월 12일 1면	그대여 걱정하지 말아요...최민정 女 쇼트트랙 100m 은메달	그대 눈물을 거뒀어요 ...최민정 女 쇼트트랙 100m 값진 은메달
	2월 17일 2면	8바퀴부터 선두로...500m·1000m 우승자들 다 제쳤다	8바퀴부터 선두로...500m·1000m 우승자들 압도했다

② 5판

9주의 분석 기간 중 5판이 발행된 경우는 3일(기사 변화 4건)에 불과했다. 발행 시간이 늦은 심야시간대(새벽 1~2시)이고 새로운 판 발행에 드는 비용도 적지 않기 때문에 5판의 발행은 예외적으로 이루어진다. 다음에서는 5판에서 나타난 기사 변화 4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첫 번째 사례는 2021년 11월 4일 1면에 실린 대장동 관련 기사로서 새로운 사건의 발생(사건 변화)으로 새로운 판을 발행한 사례이다. 해당 기사는 일반 기사와 달리 사진과 캡션(사진에 대한 설명)으로 구성된 사진 기사이다. 이전 판이 발행되는 시점에는 김만배, 남욱, 정민용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한 상태였으나 11월 4일 새벽 김만배와 남욱을 구속하고 정민용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이에 따라 '대장동 수사는 어디로...'라는 이전 판의 캡션 제목이 '김만배·남욱 배임혐의로 구속...정민용은 기각'으로 수정되는 등 캡션 내용 전반에 대한 수정이 있었다. 관련 인물 3인(김만배·남욱·정민용)의 모습을 이어 붙인 사진은 수정되지 않았다.

두 번째 사례는 정부 비판의 논조를 강화하는 문장이 추가된 경우이다(2021년 12월 2일 8

6) '질주는 빨리 달리는 것을, '스피트'는 어떤 지점에서부터 전속력을 내는 것을 의미한다(네이버 국어사전).

면 종합면). 정부 광고 집행에 관한 문체부의 발표 내용을 다룬 기사인데, 제목 등 다른 내용은 이전 판과 동일하며 5판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장을 2개 추가했다: ‘정부·공공기관·공기업 등에서 집행하는 연간 1조 893억원(2020년 기준) 규모의 정부 광고를 집행 기관 입맛대로 주무를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부든 기업이든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최대한 많은 사람이 보는 매체에 광고하는 것이 상식인데, 정부는 이와 무관한 광고지표를 내놓았다.’ 이 사례는 새로운 사건이 발생했거나 기사에 특별한 오류가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5판에서 수정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해당 기사의 내용이 자사의 이익(광고비 수입)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사의 관점에서 정부 비판 논조를 강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세 번째 사례는 기사 내용과 소제목 수정을 통해 기자의 의견과 판단을 추가한 경우(2021년 12월 3일 10면 사회면)이다. 새만금 태양광 공사현장에서 독성물질이 검출되었다는 내용의 특종 기사인데, ‘관리감독 손놓고 있던 환경부 “어떤 조치 취할지 논의해볼 것”에서 ‘감독 손놓던 환경부, 어떻게 처리하든 막대한 후유증과 비용’으로 소제목을 변경했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기사 내용도 수정되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전북환경청, 군산시 등과 논의해보겠다’는 환경부 인용 부분을 삭제하고 ‘어느 쪽이 되든 큰 후유증과 막대한 공사비가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라는 내용을 추가했다. 환경부의 입장을 인용하는 객관적인 팩트 전달 부분을 삭제하고 기자의 판단(예측)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소제목과 본문을 수정한 것이다. 새만금 태양광 사업에 대해 언론사가 취해 왔던 부정적인 논조를 일관되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내용을 수정한 것으로 추론된다.

네 번째 사례는 세 번째 사례와 동일한 일자와 지면에서 기사의 추가와 삭제가 이루어진 경우이다. 4판 발행 이후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해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손준성 영장 또 기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추가하고, 이전 판에 있던 ‘내 반려동물 진료기록부 공개하라는 청청원 있는데...’라는 제목의 기사를 삭제했다. 이 사례는 중요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기존 기사를 삭제하고 새롭게 발생한 내용을 추가한 경우로 이해된다.

5. 결론 및 함의

신문사 편집국에서 신문 초판을 발행한 이후 최종판을 발행하기까지의 최종적인 지면 편집 과정은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지, 그 과정에서 지면의 내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통해 신문의 지면 편집이 지향하는 바는 무엇인가에 답하고자 참여관찰과 내용 분석을 실시했다. 먼저, 신문사 편집국에 상주하면서 편집국의 일상을 관찰했으며, 편집국에서 이루어지는 2차례의

지면 편집회의에 참석하여 어떠한 논의가 이루어지는지 살펴보았다. 편집회의는 편집국장의 주도하에 효율적으로 진행된다. 1면부터 마지막 지면까지 거의 모든 지면의 기사를 하나하나 검토하면서 기사 위치, 제목, 사진, 내용 등에 대해 논의하는데 40~60분 정도가 소요된다. 상하 관계가 뚜렷한 편집국 내의 위계질서에 따라 편집국장이 회의를 빠른 속도로 이끌었으며, 회의에 앞서 이미 부서별로 편집국장과의 기사에 대한 조율이 끝난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효율적인 회의가 가능한 구조이다. 편집회의에서는 기사의 제목에 대한 지적과 토론이 가장 많았는데, 제목을 중심으로 하는 논의는 단순히 제목의 표현 등이 적절한지를 검토하는 것을 넘어서서 기사가 핵심 메시지를 제대로 잡았는지 검토하고 기사를 통해 무엇을 강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논조 생산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황용석, 2000). 신속하게 진행되는 회의 중에도 기사 제목이 적절한 방향을 잡지 못하거나 적절한 단어가 사용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날카로운 문제 제기과 깊이 있는 토론이 진행된다.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경우에는 회의 이후까지 적절한 단어와 표현을 찾기 위한 논쟁이 지속되기도 했다.

편집 과정에서 지면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판별 지면에 대한 내용 분석을 했다. 분석 결과 신문 초판을 발행한 이후 2판(지역배송용)과 3판(수도권배송용)으로 넘어가면서 많은 수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했다. 2판에서 수정 없이 유지된 기사는 12.2%이며, 3판에서 무수정으로 유지된 기사도 44.2%에 불과하다. 편집이 일단락되어 지역배송을 마친 이후에도 적극적인 기사 수정이 진행되는 것이다. 주로 기사 내용(본문)과 제목을 중심으로 많은 변화가 있는데, 기사 본문의 경우 가독성을 높이거나 정보를 추가하고 삭제하는 경우가 많으며 제목의 경우는 표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팩트를 강화하고 가독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수정이 이루어진다. 기사가 삭제, 추가되는 경우는 2판의 경우 삭제 116건(6.4%), 추가 141건(7.8%)이었으며, 3판의 경우 삭제 59건(3.2%), 추가 56건(3.1%)이었다. 주제별로는 정치면과 사회면의 기사가 삭제 및 추가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분석 대상 기간에 개최된 동계 올림픽 경기의 영향으로 3판에서 스포츠면의 기사가 삭제·추가되는 경우도 상대적으로 많았다.

54일의 분석 대상 기간 중 4판이 발행된 일자는 29일(53.7%)이며, 4판에서 기사가 수정된 사례는 3.6%이다. 기사가 추가된 사례는 9주의 분석 기간 중 3건이었는데, 중요도와 저명성, 심리적 거리 등의 차원에서 뉴스 가치가 높은 사건이 새롭게 발생했을 때 예외적으로 나타났다. 기사 본문이 수정된 사례는 39건이었고 가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보를 추가하거나 삭제하기 위해서 수정한 경우가 많았다. 기자의 해석과 의견을 추가한 사례는 5건이었는데, 기자의 비판적 시각이나 평가가 담긴 문장을 통째로 추가하거나, '노골적인'이나 '혼선을 빚었다' 등 단어를 몇 개 추가하는 방식으로 기자의 해석과 의견을 첨가했다. 한편, 4판에서 주 제목이 수정

된 기사는 25건이었으며 제목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수정이 가장 많았다(10건). 단어(팩트)를 추가하거나, 단어(혹은 수치)를 교체하거나, 표현을 수정하여 느낌을 살리는 방식으로 더 정확한 제목을 추구했다. 마지막으로, 5판의 발행은 매우 예외적으로 이루어진다. 분석 대상 기간인 54일 중 5판이 발행된 날은 3일이었으며 기사 내용을 수정한 사례가 3건, 기존 기사를 삭제하고 새로운 기사를 추가한 사례가 1건이었다. 이 가운데 4판 발행 후 심야시간대의 사건 발생(변화)으로 기사를 수정한 사례가 2건, 기자의 해석과 판단을 추가하여 논조를 강화한 사례가 2건이었다.

초판 발행 이후 열리는 두 차례의 편집회의는 판별 변화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지면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편집회의에서는 국장을 중심으로 거의 모든 지면을 빠르게 검토하면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고, 이후에 이어지는 데스크와 부서회의 등의 과정을 통해 지면에 대한 촘촘한 수정이 이루어진다. 편집회의의 논의는 주요 수정 사항을 검토하고 확인하는 과정이며, 이후의 지면에 대한 수정과 보완은 다양한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으면서 역동적으로 전개된다. 편집회의 이외에 편집국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상호작용 과정은 본 연구의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판별 변화 분석을 통해 지면 편집이 얼마나 광범위하면서도 세밀한 과정인지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초판 발행 이후 최종적인 신문의 지면 편집이 지향하는 바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해석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초판 발행 이후 편집국에서 이루어지는 두 차례의 지면 편집회의는 편집국장을 중심으로 하는 견고한 위계질서 안에서 신문 지면의 논조를 형성하고 기사의 정확성을 추구하는 과정이다. 편집국장은 편집국 내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갖는 주체로서 저널리즘의 가치와 신문 이념의 구현이라는 핵심적 역할(이충재·김정기, 2015)을 수행한다. 편집국장이 주도하는 편집회의를 통해 기사 제목이 본문의 주요 논점을 잘 드러내는지, 기사의 핵심 메시지(속칭 아미)가 적절하게 설정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수정 요구를 하면서 신문사가 지향하는 전체적인 방향성(논조)을 구축해 나간다. 이와 더불어 기사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정확한 팩트가 무엇인지 질문을 던지고 정확한 단어와 표현이 무엇인지 논의한다. 편집국장이 주축이 되는 편집회의의 지향점은 ‘논조’와 ‘정확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둘째, 지면 편집은 신문 배송이 시작된 이후에도 집요하고 끈질기게 지속되는 과정이다. 신문 초판이 발행된 이후 최종판이 발행되기까지 지면 수정작업은 계속된다. 2판에서의 변화는 신문을 완성해 가는 과정으로 이해되지만, 지역 배송 이후에도 절반 이상의 기사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진다. 또한 3판이 발행되어 서울·수도권 지역으로 신문이 배송된 이후에도 지면 편집이 끊임없이 지속된다. 4판에서 수정된 기사는 3.6%, 5판에서 수정된 기사는 0.5%로 새벽 시간이라

도 수정이 필요하면 윤전기를 멈추고 새로운 판을 발행한다. 온라인을 통해 속보 뉴스를 추가하거나 기사를 수정하는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문 지면의 완성도를 높이는 일에 편집국의 노동과 시간, 비용을 적극 투자하고 있다.

셋째, 오후 5시부터 자정 이후 새벽까지 지속되는 지면 편집의 과정은 정확성을 높이고, 가독성을 제고하며, 논조를 생산하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정보의 추가·삭제를 통해 팩트를 수정하고, 기사 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단어와 표현을 모색하며, 오류를 바로잡는 과정을 통해 정확성을 강화한다. 또한, 단어 선택과 사진 선정, 그래픽과 일러스트레이션과 같은 기타 이미지 선정, 편집 레이아웃에 대한 수정을 통해 가독성을 제고한다. 마지막으로, 편집회의를 통해 기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핵심 주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기사 본문에 기자의 해석과 의견을 삭제·추가하는 방식으로 논조를 강화한다.

넷째, 수도권 배송용 지면이 발행된 이후 4판과 5판에서 이루어지는 지면 수정의 내용은 새로운 사건·사고 발생이나 중대한 오류에 국한되지 않으며 가독성 제고, 정보의 삭제·추가, 기자의 해석·의견 추가 등 일상적인 편집의 내용을 포함한다. 특히 5판에서 수정된 사례 4건 중 2건은 기자의 해석·의견을 추가하여 논조를 강화하는 내용이었다. 5판의 발행이 심야시간대에 이루어지고 별도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면 편집 과정이 새로운 뉴스를 추가하거나 팩트를 바로잡거나 정확도를 높이는 데 집중되어 있지 않고 논조를 검토하고 생산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종이신문을 통해 뉴스를 접하는 사람들이 크게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⁷⁾ 그리고 디지털화와 언론 불신으로 인해 신문 위기에 직면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신문사 편집국은 지면의 완성도를 높이는 일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초판 발행 이후의 최종적인 지면 편집 과정은 사실을 확인하고 정확한 단어와 표현을 모색하는 저널리즘 실천의 과정으로 요약된다. 이 과정은 또한 관행, 습성, 신념, 조직 문화의 형태로 편집국 개개인에게 체화된 규범(habitus)이 모습을 드러내고, 이걸을 조율하며, 공유된 합의를 도출하여, 집합적인 논조·편향을 생산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1개 언론사 편집국만을 대상으로 지면 편집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언론사 전반의 관행으로 일반화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앞서 연구 방법에

7) 종이신문 열독률은 2022년 기준 9.7%로 뉴스 전달 매체로서 종이신문의 이용률은 매우 낮다. 반면 종이신문을 포함해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PC, 텔레비전, 인공지능 스피커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신문 기사를 이용하는 결합열독률은 84.1%에 달한다(한국언론진흥재단, 2022, 26쪽).

서 언급한 것처럼 연구 대상 신문사가 ‘디지털 퍼스트’보다는 ‘저널리즘 퍼스트’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종이신문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조직이었다는 점이 연구 결과를 해석할 때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디지털화가 급격히 전개되면서 일부 신문사에서는 종이신문 제작에 투입되는 편집 인력을 대폭 줄이거나 편집의 과정을 간소화하는 등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김달아, 2018; 김도연, 2020; Keith, 2009). 디지털화로 인한 종이신문 편집 과정의 변화와 그것이 지니는 함의를 심층적으로 다루는 후속 연구를 기대한다.

References

- Choi, J., & Lee, H. (2023). *Digital news report 2023 South Korea*. Seoul: Korea Press Foundation. [최진호·이현우 (2023).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3 한국>.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Choi, M. (2019). A study of ethnography 'Beruf' and 'Wertfreiheit' of Korean investigative journalis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최문호 (2019). <한국 탐사보도 언론인의 소명의식(Beruf)과 가치자유(Wertfreiheit) 실천에 대한 참여관찰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Choi, M., & Park, S. K. (2018). A study of ethnography on the sense of calling and practice of the Korean investigative journalists - The news reporter team in Newstapa -. *Journal of Communication Research*, 55(3), 249-307. [최문호·박승관 (2018). 한국 탐사보도 기자들의 소명의식과 실천에 대한 문화기술지 연구: 뉴스타파 취재팀을 대상으로. <언론정보연구>, 55권 3호, 249-307.]
- Cottle, S. (2007). Ethnography and news production: New(s) developments in the field. *Sociology Compass*, 1(1), 1-16.
- De Smaele, H., Geenen, E., & De Cock, R. (2017). Visual gatekeeping - Selection of news photographs at a flemish newspaper. *Nordicom Review*, 38(S2), 57-70.
- Dupagne, M., & Garrison, B. (2006). The meaning and influence of convergence: A qualitative case study of newsroom work at the Tampa News Center. *Journalism Studies*, 7(2), 237-255.
- Fishman, M. (1980). *Manufacturing the news*. Austin, TX: University of Texas Press.
- Gans, H. J. (1979). *Deciding what's news: A study of CBS evening news, NBC nightly news, newsweek, and time*. New York, NY: Pantheon Books.
- Gans, H. J. (2004). *Deciding what's news: A study of CBS evening news, NBC nightly news, newsweek, and time* (25th anniversary ed.). Evanston, IL: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 Gitlin, T. (1980). *The whole world is watching: Mass media in the making & unmaking of the new left*.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Golding, P., & Elliott, P. (1979). *Making the news*. London, UK: Longman.
- Heo, C., Park, K.-W., & Kim, S.-T. (2009). The increased importance of the audience participation in television news production and its influences on journalists' daily practices in the age of digital technologies. *Studies of Broadcasting Culture*, 21(1), 39-76. [허철·박관우·김성태 (2009). 디지털 시대의 방송뉴스 생산 관행의 변화와 시청자의 뉴스 생산과정 참여. <방송문화연구>, 21권 1호,

39-76.]

- Her, J.-A., & Lee, O.-H. (2009). A qualitative study on the forces that influence the article production of local newspapers: Focus on the article production of Gwangju-dream.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 Information*, 46, 449-484. [허진아·이오현 (2009). 지역신문 기사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적 연구: 『광주드림』 기사생산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46호, 449-484.]
- Hong, E.-H. (2012). News organizations' culture and disaster reporting routine: Focused on reporters' safety issues. *The Journal of Social Science*, 19(2), 151-178. [홍은희 (2012). 언론사 조직문화와 재난보도 취재 관행. <사회과학연구>, 19권 2호, 151-178.]
- Hong, J.-H., & Choi, S. Y. (2017). The influence of the environmental conditions, the political tendency and the degree of freedom during performance on the perception of journalists on the quality of the pres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7(5), 209-220. [홍주현·최선영 (2017). 뉴스생산 환경 및 조직과 기자의 정치적 성향, 업무 수행 자유도가 언론의 전문성, 공정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권 5호, 209-220.]
- Hong, S. Y., & Jung, E. (2017). Fake news and journalism's credibility crisis -Phenomena and alternatives-. *Crisisonomy*, 13(8), 43-60. doi:10.14251/crisisonomy.2017.13.8.43 [홍숙영·정의철 (2017). 가짜뉴스와 언론 신뢰의 위기-현황 분석과 대응 방안 탐색. <한국위기관리논집>, 13권 8호, 43-60.]
- Hwang, Y.-S. (2000). A study on comparing first editions routine among national newspapers.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44(4), 201-247. [황용석 (2000). 중앙일간지의 초판신문 비교관행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44권 4호, 201-247.]
- Jeong, T. (2005). The need for journalism professionalism: A discussion of issues and reforms in the Korean media after democratization in 1987. *Journalism Science Research*, 5(2), 417-454. [정태철 (2005). 언론 전문직업인주의(professionalism)의 필요성: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언론의 문제와 개혁에 대한 논의. <언론과학연구>, 5권 2호, 417-454.]
- Jung, J. (2009). Assessing the organizational culture of the newspaper companies based on the competing values model.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3(4), 72-93. [정재민 (2009). 경쟁가치모형에 따른 신문산업의 조직문화 연구. <한국언론학보>, 53권 4호, 72-93.]
- Jung, J., & Kim, Y.-J. (2008). Effects of person-organization fit and job satisfaction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urnover intention - A Case of media firms' employees.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22(3), 290-331. [정재민·김영주 (2008). 미디어 기업

종사자의 조직적합도와 직업만족도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방송학보>, 22권 3호, 290-331.]

Kang, H. (2012). A study on the determinant factors of newspaper headlines: Focused on news influence variables, editor's role orientation and professionalism. *Digital Convergence Study*, 10(8), 347-365.

[강현직 (2012). 신문기사 제목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뉴스 영향변인·편집자의 역할지향성과 전문직업관을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0권 8호, 347-365.]

Keith, S. (2009, September). Sinking subs and collapsing copy desks? The evolution of editing at newspapers and their web sites. Paper presented at the Future of Journalism Conference, Cardiff, UK.

Kim, C. (2020). Ritual, defensive, intentional: A study on gatekeeping practices centered on fact-checking of major Korean newspaper editors.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64(5), 5-45. doi:10.20879/kjcs.2020.64.5.001 [김창숙 (2020). 의례적, 방어적, 의도적: 한국 주요 신문 에

디터의 사실확인을 중심으로 한 게이트키퍼 관행 연구. <한국언론학보>, 64권 5호, 5-45.]

Kim, D. (2018, December 10). JoongAng Ilbo accelerates 'digital focus' organization. *Journal of the Korean Journalists Association*. Retrieved 2/17/24 from <https://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45350> [김달아 (2018, 12, 10). 중앙일보 '디지털 중심' 조직 가속화. <한국기자협회보>.]

Kim, D. (2020, October 29). *Hankyoreh "Let's drive back to the paper newspaper"*. Media Today. Retrieved 2/17/24 from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062> [김도연 (2020,

10, 29). 한겨레 “종이신문으로 돌아갈 길 태워버리자”. <미디어오늘>.]

Kim, D., & Kim, K. (2005). A qualitative study on the organization system and practices of domestic newspapers. *Journalism Science Research*, 5(2), 33-68. [김동규·김경호 (2005). 국내 신문사 취재 조직체계와 관행에 대한 질적 연구. <언론과학연구>, 5권 2호, 33-68.]

Kim, K.-W., & Kim, K. (2013). Cultural control through performances in the newsroom: A case study of Chosun Ilbo.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 Information*, 62, 223-243. [김건우·김균 (2013).

사주의 퍼포먼스와 신문 조직의 문화적 통제: 조선일보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62

호, 223-243.]

Kim, S. S. (2008). A theoretical analysis on the technological crisis of journalism: Concerning news production process. *Communication Theories*, 4(2), 7-47. [김사승 (2008). 저널리즘의 기술적 재구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 <커뮤니케이션 이론>, 4권 2호, 7-47.]

Kim, U., & Choi, I. (2007). Definition of conservative and progressive design in comparison with Korean daily newspaper, Chosun and Hankyoreh from a political, social point of view. *Illustration Forum*,

- 8(15), 53-73. [김은정·최인숙 (2007). 한국의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의 편집디자인 비교 분석 및 신문 편집디자인의 방향에 관한 연구 -사진편집을 중심으로-. <일러스트레이션 포럼>, 8권 15호, 53-73.]
- Kim, U., & Lee, K. (2010). Study on the political tendency appeared on the editing and design of newspaper. *Journal of Digital Design*, 10(3), 103-113. [김은정·이건실 (2010). 신문편집디자인에 나타난 정치적 성향 연구. <디지털디자인학연구>, 10권 3호, 103-113.]
- Kim, Y. (2011, May). The crisis of political and social communication in the Korean press. Paper presented at symposium and seminar of the Korean Press Society, Seoul. [김영욱 (2011, 5월). <한국 언론의 정파성과 사회적 소통의 위기>. 한국언론학회 심포지움 및 세미나.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 Korea Press Foundation (2022). *2022 media audience survey*. Seoul: Author. [한국언론진흥재단 (2022). <2022 언론수용자 조사>.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Lee, B., Lim, J., Maeng, T., Han, K., & Kang, S. (2010). *Nicely edited good newspaper*. Seoul: Hanwool Academy. [이배영·임준수·맹태균·한경석·강상대 (2010). <멋진 편집 좋은 신문>. 서울: 한올아카데미.]
- Lee, C. J., & Kim, J. K. (2015). A Study on the awareness over the editing rights of managing editors for general daily newspapers: Analyzing current and former managing editors for 10 daily newspapers.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9(6), 165-186. [이충재·김정기 (2015). 종합일간지 편집국장의 편집권에 대한 인식 연구: 10개 일간지 전·현 편집국장을 대상으로. <한국언론학보>, 59권 6호, 165-186.]
- Lee, K. (2010). On the “field” or “ethnographic journalism” and the creative use of narratives in the case of Hankyoreh 21’s <Nodong OTL> series. *Media & Society*, 18(4), 107-157. [이기형 (2010). “현장” 혹은 “민속지학적 저널리즘”과 내러티브의 재발견 그리고 미디어 생산자 연구의 함의: <한겨레 21>의 <노동 OTL> 연작을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18권 4호, 107-157.]
- Lee, O. H., & Lee, S. H. (2019). A critical study of news production cultures of Korean newspapers: Focusing on the organizational cultures and the problems of news production of Korean major national daily newspapers.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 Information*, 97, 77-118. doi:10.46407/kjci.2019.10.97.77 [이오현·이석호 (2019). 한국 신문의 뉴스 생산문화에 대한 비판적 연구: 중앙일간지의 조직문화와 기사생산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97호, 77-118.]
- Lim, H., & Rhee, J. W. (2011). The press' utilization of the government's press releases in Korea.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5(2), 5-31. [임현수·이준웅 (2011). 보도자료 기사화 과정에서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정부 보도자료에 대한 조선일보, 한겨레 기사 분석을 중심으로.]

로. <한국언론학보>, 55권 2호, 5-31.]

- Lim, Y. (2019). *Newspaper principles*. Seoul: Hannarae Publishing. [임영호 (2019). <신문원론>. 서울: 한나래출판사.]
- Lim, Y. (2020). Methodological issues in media production studies.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 Information*, 101, 48-80. [임영호 (2020). 미디어 생산(자) 연구의 방법론적 쟁점: 전통적 미디어 대상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101호, 48-80.]
- McCombs, M. E., & Shaw, D. L. (1972). The agenda-setting function of mass media. *Public Opinion Quarterly*, 36(2), 176-187.
- Naver Korean Dictionary. ko.dict.naver.com. [네이버 국어사전.]
- Newman, N., Fletcher, R., Schulz, A., Andi, S., Robertson, C. T., & Nielsen, R. K. (2021). *Reuters Institute digital news report 2021*. Oxford, UK: Reuters Institute for the Study of Journalism.
- Park, D.-S., Cho, Y.-H., & Hong, J.-H. (2001). A qualitative study of news source-reporter relations - On the problems of beat reporting system -.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45(special edition), 367-396. [박동숙 조연하-홍주현 (2001). 공적 업무 수행을 위한 사적 친분 고리: 출입처에서의 취재원과 기자의 상호작용에 대한 질적 탐구. <한국언론학보>, 45권 특별호, 367-396.]
- Park, S. (2013). Study on newspaper editing behavior seen by the 'Yunchangjung case': Focused on the sensationalism of the newspaper headline and editorial. *Journal of Political Communication*, 31, 209-236. [박선홍 (2013). 윤창중 사건에서 나타난 신문편집 행태에 관한 연구: 종합일간지 1면 제목과 사실의 선정성 시비를 중심으로.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31호, 209-236.]
- Rhee, J.-W. (2010). Media system and values of newspapers: Considerations of the crisis of Korean journalism.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4(4), 253-275. [이준웅 (2010). 언론 체계와 신문의 가치 창출: 이른바 '신문 위기'에 대한 대안의 모색. <한국언론학보>, 54권 4호, 253-275.]
- Rhee, J. W., & Choi, Y.-J. (2005). Causes of the crisis in Korean newspapers: Functional displacement in media use, provision of lower value, and trust crisis.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49(5), 5-35. [이준웅-최영재 (2005). 한국 신문위기의 원인: 뉴스 매체의 기능적 대체, 저가치 제공, 그리고 공정성 위기. <한국언론학보>, 49권 5호, 5-35.]
-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Studies, Korea University (2009). *Korea University Korean dictionary*. Seoul: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Studies, Korea University.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9). <고려

대 한국어대사전>. 서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 Ryfe, D. M. (2009). Broader and deeper: A study of newsroom culture in a time of change. *Journalism*, 10(2), 197-216.
- Schultz, I. (2008). Context in newsroom ethnography: Reflexive sociology and the concepts of journalistic field, news habitus and newsroom capital. Paper presented at Inter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 2007, San Fransisco, CA.
- Searle, J. (1995). *The construction of social reality*. New York, NY: The Free Press.
- Shoemaker, P. J., & Reese, S. D. (1996). *Mediating the message*. New York, NY: Longman.
- Shon, S.-C. (2006). The substance of crisis and alternative proposal in journalism.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 Information*, 36, 42-77. [손석춘 (2006). 저널리즘 위기의 실체와 극복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36호, 42-77.]
- Singer, J. B. (2008). Ethnography of newsroom convergence. In C. Paterson & D. Domingo (Eds.), *Making online news: The ethnography of new media production* (pp. 157-170). New York, NY: Peter Lang.
- The Chosun Daily ethics guidelines (entered 26 December 2017), Retrieved 2/17/24 from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26/2017122601251.html [조선일보 윤리규범 가이드라인 (2017. 12. 26. 입력).]
- Tuchman, G. (1972). Objectivity as strategic ritual: An examination of newsmen's notions of objectivity.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7(4), 660-679.
- Tuchman, G. (1973). Making news by doing work: Routinizing the unexpected.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9(1), 110-131.
- Tuchman, G. (1978). *Making news: A study in the 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 New York, NY: Free Press.
- Waisbord, S. (2013). *Reinventing professionalism: Journalism and news in global perspective*. Cambridge, UK: Polity Press.
- Yoon, Y.-C., & Hong, S.-G. (1996). Community power structures and newsmaking: A participatory observational study of the newsmaking process in local media. *Media & Society*, 11, 90-122. [윤영철·홍성구 (1996). 지역사회 권력구조와 뉴스 만들기: 지역언론의 뉴스를 형성과정에 관한 참여관찰 연구. <언론과 사회>, 11권, 90-122.]
- Yoon, Y.-K. (2013). The research of story telling for infotainment in newspaper editing.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7(2), 19-30. [윤여광 (2013). 인포테인먼트(infotainment)를 위한 신문 편집의 스토리텔링 연구.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7권 2호, 19-30.]

Yu, J. G., & Oh, K. (2012). A study on the influence of newspaper frame in adopting - Politician's speaking: Focused on media bill issue. *Political Communication Research*, 26, 73-113. [유재광·오경수 (2012). 신문의 뉴스프레임과 정치인 발언 보도태도 연구 - 미디어법 이슈를 중심으로.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26호, 73-113.]

최초 투고일 2023년 10월 13일

게재 확정일 2024년 01월 30일

논문 수정일 2024년 02월 01일